

국학고전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모범적인 방안 연구*

Study on Model Case of Ideal Digitization of Korean Ancient Books

이 희 재(Hee-Jae Lee)**

초 록

이 연구는 보존 기록 자료로서의 우리의 고전 장서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연구자나 이용자들에게는 시공을 초월한 열람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디지털 도서관으로서의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우선 동양 전래의 사부 분류법과 현대적인 주제 분류, 그리고 색인어 등을 통해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고, 둘째, MARC나 XML 등을 활용한 DL시스템을 구축하되, 서지적 기술요소를 최대한 확대시키며, 셋째, 쉬운 해제와 색인어로 이용자의 이해를 극대화하고, 마지막으로 원본의 손상을 막기 위해 원문 DB를 구축하여 열람용으로 사용한다. 이는 향후 국내의 한국 고전 관련기관과 협력,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 국제적 서지 통정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most of all, this study is planned to search an ideal methods to develop the digital library system for our korean ancient books for their safe preservation and, at the same time, for their perusal of transcendental time and space : first, to offer the various access points like traditional oriental Four parts Classics classification, current subject classification and index keyword, etc. : second, to program a digital library system using MARC or XML, but with all bibliographic descriptive elements as possible: third, to prepare the more easy annotated bibliography and index for users' better comprehension, and last, to build original text database for practical reading to avoid the damage of original text. This type of korean ancient books digital library will be developed to the real international bibliographic control by networking enter the same kinds of internal and external organizations.

키워드: 경사자집, 사부분류, 주제분류, MARC, XML, 서지기술요소, 『邵城 聯芳集』, 『近思錄』
Classics · History · Sciences and Arts · Literature, four parts classics classification, subject classification, MARC, XML, bibliographic descriptive elements, 『So sung yun bang jip (Joint collection of So sung)』, 『Keun sa rok(Selection of ancient confucianists' works)』

-
-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1-HS3501. 연구책임자: 이희재, 공동연구원: 윤분희, 김지연)
 -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hee0612@sookmyung.ac.kr)
 - 논문접수일자 : 2005년 2월 11일
 - 게재확정일자 : 2005년 3월 8일

1. 서론 및 전제조건

근래 국내외 한국학 자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부각되고 있으나, 막상, 특히 고서를 중심으로 하는 국학고전자료의 기초 자료 정리는 바람직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선 규장각이나 국립도서관 그리고 존경각을 비롯한 몇 개의 대학 등 10여 처 남짓의 큰 기관을 제외하고는 고전자료에 적합한 물리적인 환경도 열악한데다가, 경사자집의 기본적인 분류나 그밖에 기본적 목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에서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고전자료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학술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써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 이하 각 해외지역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헌의 경우에서 보듯이 특히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중요도는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물리적인 측면에서나 목록 및 원문의 전산화 정리 측면에서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리의 방법이 요구되는 바, 기존의 경사자집의 분류나 목록, 그리고 또한 현대에 알맞은 주제 분류 및 해제는 기본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쉽게 변질되거나 손상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원문의 전자파일 형태의 정리와 보존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직까지도 고전자료의 경우, 그 가치에 대한 인지도나 열람빈도가 적기 때문에 디지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정리체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자도서관의 구축에 있어서 적지 않은 사례들이 발표되거나 실행되고 있으나 대상이 고전자료라는 콘텐츠의 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한 채 일

반자료를 위한 시스템 일변도로 흐른다는지,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고전자료라는 개념에 억매어 보다 일반적이고 현대적, 또는 국제적인 감각에 뒤쳐진 정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 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전산화가 이루어진 규장각이나 국립도서관, 그리고 여러 대학도서관도 용어의 현대적인 해석이라든가 효율적인 주제와 원문의 검색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좀 더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정리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의 출현이 바람직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2년 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지원사업 국학고전연구)에 선정되어 구형식의 카드 목록으로 제목 등의 단순한 기본 정보만을 주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고전자료 만 2천책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정리와 함께 효율적인 디지털화를 이루고자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비교적 방대한 책 수(3,000건 이상의 서지, 12,000여 책)를 원문까지 포함하여 정리를 하기에는 시간과 예산 등의 문제로 1년간의 결과물으로써는 1,320여 건의 서지목록의 전산화 및 150여 건 남짓의 해제의 작성에서 일단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모든 작업이 완성되는 것은 앞으로의 시간상의 문제일 뿐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연구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산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타 도서관의 고전장서 정리에라도 적용시킬 수 있는데 이 연구가 갖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위 디지털화(digitization)를 함에 있어서 '무엇을 위한 디지털화인가'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전자료의 디지털화'의 기본적인 초점

은 본질을 무시한 ‘디지털 테크닉’이 우선이 아니라 ‘고전자료’에 대한 확실한 기본 개념의 이해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마치 디소러스(thesaurus)의 정립이 전문 용어(terminology)에 대한 선행 연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경우이다.

근래에 이르러 한국학과 고전 자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원전의 발굴이나 번역, 그리고 그 밖의 학문적인 연구는 이전에 비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유독 고전 자료의 바람직한 정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은 것들로 보고 있다.

우선 자료의 체계적 정리 작업, 다시 말해 조직적인 문헌정보관리를 한문학 연구와 동일시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적당히 서명과 저자, 그리고 발행된 연대쯤을 밝히고 용어와 내용을 거의 한문학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혹시 원전을 충분히 살린다는 이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일반적으로 열람되고 이용되어질 수 없다는 결함이 크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용어라든가 뜻풀이는 쉽고 평이하게 하되 원전을 살려야 할 때는 괄호 안에 삽입시켜주는 융통성을 주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서지 목록 또는 원문의 전산화 측면에서, 이번에는 앞의 상황과는 반대로 고전 자료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디지털 테크닉’에 주안점을 두고 다른 대상물과 같은 일반적인 형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고전자료의 기본적인 정리체계를 숙지하면서 전산화에 투입될만한 전문가의 부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개념의 형성이 안일하고 부족한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전에서의 새로운 접근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점에서 다른 과학적인 방법의 연구 없이 정리되고 보관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문의 디지털화의 주 목적은 내용물에 대한 보다 접근하기 쉬운 열람과 동시에 원전 자료의 완전한 보존과 보전에 있다. 그런데 원활한 자료의 이용과 완전한 물리적인 보존의 문제가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고전자료의 장서라는 콘텐츠 측면에 우선적인 기반을 두고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시작하였다.

첫째, 경사자집(經史子集)의 기본적 분류와 함께 현행적인 학문분류도 적용시키며 주제어와 색인어를 통한 손쉬운 검색 체계

둘째, 전문가 위주의 해제에서 벗어나 보다 평이한 용어로써의 색인이라든가 내용 이해의 일반화 추구

셋째, 완벽한 서지적 기술요소(bibliographic description elements)와 원문(full text) 구축을 통한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 개념으로서의 원문 축적과 원문 검색 추구

넷째, 한국고전자료에 관한 한 바람직한 서지통정(書誌統整, bibliographic control)과 네트워크의 확충으로 국내외 고서자료의 국제적인 연계 도모

다섯째, 디지털 자료 및 원전 자료의 이상적인 열람과 보존을 위한 향은, 향습, 향균과 적절한 포갑 및 서가의 배열 등을 통한 물리적 환경의 최적화 방안 제시 등이다. 그러나 다만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기에 그 내용의 성격이나 분량상의 제한점으로 일단 여기서는 문제의 제기에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힌다.

2. 국학고전자료의 분류 및 목록

<http://lib.sookmyung.ac.kr/dlsearch/TG UI/Theme/theme1/main.asp>).

2.1 사부분류 및 주제분류

고전자료에 대한 분류에 있어서, 역시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사부분류 체계의 채택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점이다. 우리의 한국학 고전자료에 대해서는 다소의 지엽적인 수정은 있겠으나 일단은 규장각의 사부분류체계(<http://kyujanggak.snu.ac.kr/bha/sabu.htm> ; 서울대학교규장각 1994, 『奎章閣韓國本圖書目錄』)를 기본으로 삼는 것이 무난할 듯하며 전문적이고 어려운 사부분류에 더하여 현대적인 용어로서의 분류체계를 반드시 덧붙일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 중에서 고서의 분류에 있어서도 간혹 현대적인 십진법을 적용하는 도서관이 있으므로 분류체계의 매핑(mapping)을 시도할 수 있다. 다만 고전자료의 주제는 지극히 한정되고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전산화된 체계에서의 검색에서는 문자 용어로서의 검색이 대세이므로 굳이 십진법이라는 숫자로서의 분류보다는 주제어로서의 분류체계의 적용이 적합할 것이다.

아울러 사부분류에 대한 해설 역시 사전(事前) 이용안내 등에서 좀 더 명확하고 쉬운 표현을 써주는 일은 필수적이다. 모든 항목에 대한 설명을 주는 것은 지면관계상 어렵겠고 경·사·자·집(經·史·子·集)의 각각 상위 몇 개의 항목만 예시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總經類: 경부에 속한 모든 경 중 2가지 이상의 경서(經書)에 대해 논한 것

易類: 주역(周易) 등 각종 역경류에 관한 것.

書類: 상서(尙書) 등 서경류에 관한 것.

正史類: 기표지전(紀表志傳)의 예에 따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정 역사서

編年類: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연대별 역사서

紀事本末類: 사건별로 쓰여진 역사서.

諸家類¹⁾: 제자백가(諸子百家) 사상 중 두 가지 이상의 사상을 모은 것

儒家類: 예인의(禮仁義)로 이상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공자의 유가사상에 관한 것

道家類: 자연을 숭상하고 무위(無爲)를 주로 하는 노장(老莊)사상에 관한 것.

總集類: 두 사람 이상의 시문 또는 산문 등의 문집을 모아놓은 것

別集類: 한 개인의 시문 또는 산문을 모아놓은 것

書簡類: 한 개인이나 여러 사람의 편지글을 모아놓은 것

사부분류와 주제 분류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표로서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라든가 해외장서용 입력 등 향후 지향해야

1) 규장각에서는 총자류(總子類)로 주고 있으나 자부에는 000대의 총류에서부터 모든 전 학문분야에 걸쳐 수록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학서들만이 모여 있는 총경류와 같은 경우와는 차별화 되어야한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고서로는 『십자전서(十子全書)』와 같이 여러 제가의 사상을 합친 것들이므로 제가류로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국제적인 관점에서 영문명(한국도서관협회 조)2)도 병기 한다.
2003, 89-99, 854-856, 873, 949에서 일부 참

사부분류	영문명(좌: 사부분류/ 우: 주제분류)	주제분류
경부(經部) 총경류(總經類)	Classics Chinese classics	동양고전철학(경학) 경학총류
역류(易類)	Changes in general/phylosophy	역경, 철학
서류(書類)	Document in general/politics	서경, 정치
시류(詩類)	Poetry in general/litterature	시경, 문학
춘추류(春秋類)	Spring and autumn annals/history	춘추, 역사
예류(禮類)	Rituals in general/courtesy	예기, 예의
효경류(孝經類)	Filial piety	효경, 효
사서류(四書類)	The Four books	사서, 유학
악류(樂類)	Musics in general	악경, 음악
소학류(小學類)	Sohak/textbook	소학, 교본
사부(史部) 정사류(正史類)	History Authentic history	역사 정사
편년류(編年類)	Chronological history/chronicle	편년사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Descriptive history	사건별 역사
별사류(別史類)	Particularized history	개별적 역사
잡사류(雜史類)	Miscellaneous history	잡사
사표류(史表類)	Chronology	연표
초사류(抄史類)	Historical abstract	사초
사평류(史評類)	Historical criticism	사평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Ordinance and memorial	조령주의
전기류(傳記類)	Biography	전기
보계류(譜系類)	Genealogy	족보
직관류(職官類)	Government organization	관직
정버류(政法類)	Political law	정법
정서류(政書類)	Political history	정치사
산업류(產業類)	Industry	산업
지리류(地理類)	Geography	지리
서지류(書誌類)	Bibliography	서지
금석류(金石類)	Epigraph	금속
자부(子部) 제가류(諸家類)	Sciences and Arts Chinese Sages	학술전반 제자백가
유가류(儒家類)	Confucianism	유학(유가, 유교)
도가류(道家類)	Taoism	도가(도교)
석가류(釋家類)	Buddhism	불교
병가류(兵家類)	Ancient tactics	군사
농가류(農家類)	Ancient agriculture	농사
의가류(醫家類)	Oriental Medicine	의학
잡가류(雜家類)	Miscellany	잡학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Ancient astronomy and arithmetics	천문산법

2) 용어의 기본적인 상위개념이 동양(한국) 고전자료이므로 기본개념은 명시 안함: ex. 동양고전철학=철학, 동양고전정치=정치, 동양고전문학=문학 등. 또한 주제 분류에서는 현대적 관점에서 이중으로 표기될 수도 있음: ex. 역경, 철학; 서경, 정치 등.

수술류(術數類)	The science of divination	예언
예술류(藝術類)	Arts	예술
정음류(正音類)	The Korean script	한글
역학류(譯學類)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번역, 통역
보록류(譜錄類)	List of all kinds of things	만물용어기록
유서류(類書類)	Little Encyclopedia	소 백과사전
서학류(西學類)	Western studies	서학
동학류(東學類)	Korean Chondoism	천도교
기독교류(基督教類)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기타종교류(其他宗教類)	Other religions	기타 종교
소설가류(小說家類)	Proses	산문
집부(集部)	Litterature	문학
총집류(總集類)	Collection	문집
별집류(別集類)	Private collection	개인문집
서간류(書簡類)	Letters	서간
사곡류(詞曲類)	Words	운문, 가사
詩文評類	Comments on Poetry	시문평
小說類	Fiction	소설
隨筆類	Essay	수필
雜著類	Miscellaneous writing	잡문

2.2 서지목록 작성

사실 저작권의 문제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고전자료의 디지털 도서관(DL) 체제는 그 어느 장서보다 가장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로서 DL화를 위한 이상적인 마크 업(Mark Up) 언어인 XML에 기반한 기술요소 및 선택적 원문구축은 가장 바람직한 상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고서의 전산화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경우나 또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예산상의 문제로 일단은 기존의 MARC 체제로 구축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 MARC로 이미 정리되고 해제된 자료는 쉽게 변환될 수 있으므로 새로 시작하는 고전정리의 경우라도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우선 처리하게 손쉬운 MARC

포맷으로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서의 서지기술규칙과 자동화목록규칙(국립중앙도서관 2000)은 현재 목록의 전산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미 대부분의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바,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겠고 문제는 시스템 개발과 목록의 입력 시 일반서와 차별화되는 이들만의 필드의 중요도라든가 비중에 대한 숙지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서의 자세한 서지기술요소(bibliographic descriptive elements)는 뒤에 장서의 DL화에서 다루어지므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2003년에 MARC로 전산화된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고서(邵城聯芳集)³⁾의 교열지와 서지기술규칙에 부합한 목록의 예를 소개한다. 당시 작성된 해제는 일단 뒤에 원문과 더불어 바람직한 DL 시스템에 적용하기로 한다.

3) 『邵城聯芳集』은 연대 상으로 보아서 그다지 귀중한 자료는 아니나 그리 흔하지 않은 자료로서 서지기술요소의 예로 무난할 뿐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도 해제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샘플링으로 채택하였다.

<교열지>

서지번호 : 0000444060 MARC : KOR-OB

최종갱신 : [9111] 2003/02/11 - 01:29:23

- 000 00821nwm k
 005 20030211012920
 007 oe
 008 030206s1863 tgk aabc c C99ae chi
 040 __ ▼a211043▼c211043
 082 __ ▼a811.08▼215
 085 5__ ▼a集部 總集類▼2사부분류
 090 __ ▼xCL▼a811.08▼b채선길▼c소
 245 00 ▼a邵城聯芳集 /▼d蔡先吉(朝鮮), ▼e蔡先見(朝鮮) 共著
 250 __ ▼a木板本
 260 __ ▼a大邱 :▼b盛才堂,▼c哲宗 14(1863)
 300 __ ▼a4卷1冊 :▼b四周單邊, 半郭 20 x 16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內向二葉花紋魚尾 :
 ▼c 31 x 20 cm
 500 00 ▼c書名: 序題
 500 00 ▼c表紙書名: 聯芳集
 500 00 ▼c版心題: 聯芳集
 500 00 ▼p序: 上之九年己巳(1809)仲春上浣沙梁崔興璧序
 500 00 ▼p跋: 上之十年龍集庚午(1810)榴夏上澣通訓大夫玄風縣監金用默謹跋
 500 00 ▼p刊記: 己巳(1809)四月日狎鷺亭新刊
 500 00 ▼p刊記: 癸亥(1863)四月日盛才堂重刊.
 500 00 ▼q楮紙
 505 00 ▼n卷1-2, ▼t琴灘逸稿 /▼d蔡先吉 著. -- ▼n卷3-4, ▼t兩傳軒文集 /▼d蔡先見 著
 700 1__ ▼a채선길
 700 1__ ▼a채선건
 740 __0 ▼a연방집

<목록>

邵城聯芳集 / 蔡先吉(朝鮮), 蔡先見(朝鮮) 共著 -- 木板本 -- 大邱 : 盛才堂, 哲宗 14(1863) -- 4卷
 1冊 : 四周單邊, 半郭 20 x 16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內向二葉花紋魚尾 ; 31 x 20 cm --
 書名: 序題: 表題: 聯芳集: 版心題: 聯芳集: 序: 上之九年己巳(1809)仲春上浣沙梁崔興璧序: 跋:
 上之十年龍集庚午(1810)榴夏上澣通訓大夫玄風縣監金用默謹跋: 刊記: 己巳(1809)四月日狎鷺亭新
 刊: 刊記: 癸亥(1863)四月日盛才堂重刊.: 楮紙: 卷1-2, 琴灘逸稿 / 蔡先吉 著. -- 卷3-4, 兩傳軒文
 集 / 蔡先見 著

3. 국학고전 장서의 디지털 도서관(DL)화

서지, 목록은 물론 시공을 초월한 디지털 원문의 검색과 열람을 추구하는 디지털 도서관은, 처음부터 디지털 체제로 작성된 연구 논문이나 저술로 구성되고 검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종이 매체가 대다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종이나 기타 아날로그 등의 비(非)디지털 매체를 이미지 파일로든 텍스트 파일로든 변환시키는 문제는 엄청난 예산이 요구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저작권 문제가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류 문화의 유산인 고전 장서의 디지털화는 그 가치로 보나 용이성으로 보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나 해당기관의 일차적인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미 선진 도서관에서 서서히 시작된 경향으로 어차피 가까운 장래에 기록자료 자체가 디지털 매체로 바뀔 경우 MARC 체제의 목록 작업은 XML, 또는 차세대 마크업 언어로 교체되어갈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고전자료의 정리는 DL 체제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고전자료는 무엇보다도 손상 없는 유지 보존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또한 이와는 상반되게 자료는 열람되고 이용되어야 할 의무와 가치를 띠는다는 두개의 양면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최적의 방법이 바로 고전장서의 디지털 도서관화인 것이다.

이를 위해 XML에 기반한 국학고전자료의 디지털화의 하나의 연구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 개발을 유도해 보기로 한다.

3.1 XML DTD를 통한 기술요소 추출

고서의 디지털화를 추구하는데 기본적인 기술되어야 할 형식은 다음의 것들이다. 결국 지금까지 고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온 MARC의 자동화 목록기술규칙이나 목록규칙의 각종 기술항목에 더하여 해제와 원문의 필드를 부가하면 되는 것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XML DTD⁴⁾를 구성해 볼 수 있다(김정하 2004, 62-76).

```
<?xml version="1.0" encoding="euc-kr"?>
<!--저자서명사항-->
<!ELEMENT 서명저자사항 (서명, 서발문, 잡제, 권차서명, 대등서명, 기타서명)>
  <!ELEMENT 서명 (제명, 저자명, 칭호?, 생몰년?)>
    <!ELEMENT 제명 (#PCDATA)>
    <!ELEMENT 저자명 (#PCDATA)>
      <!ATTLIST 저자명 roll (著|撰|造|編|輯|補|校|注|批|譯|節|錄|記|懸|吐|書, 畫|刻)>
    <!ELEMENT 칭호 (#PCDATA)>
```

4) 서지구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영역(area of responsibility)인 서명저자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하부구조는 지면관계상 생략함. 하부구조에 대해서는 뒤에 『邵城聯芳集』의 실례를 참조할 것. 또한 모든 기술영역은 DTD 상에서는 취급되더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적으로는 필드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음.


```

    <!ELEMENT 생몰년 (#PCDATA)>
    <!ELEMENT 서문 (저자명)>
    <!ATTLIST 서문 indef (서문|발문) #REQUIRED>
    <!ELEMENT 저자 (#PCDATA)>
    <!ELEMENT 잡제 (#PCDATA)>
    <!ELEMENT 권차서명 (#PCDATA)>
    <!ELEMENT 대등서명 (#PCDATA)>
    <!ELEMENT 기타서명 (#PCDATA)>
    <!ATTLIST 잡제 title (卷首題|標題紙書名|表題|裏題|版心題)>

<!--제어필드-->
<!ELEMENT 제어필드 (제어번호, 최종처리일시, 형태기술필드, 목록작성기관)>
    <!ELEMENT ..... - 생략 -

<!--언어-->
<!ELEMENT 언어 (본문, 해제, 원저작)>

<!--기호-->
<!ELEMENT 기호 (분류기호, 자관청구기호)>

<!--판사항-->
<!ELEMENT 판사항 (판차, 판중, 주기사항)>

<!--간사사항-->
<!ELEMENT 간사사항 (간사지, 간사년, 간사자, 인쇄지, 인쇄자, 인쇄년)>

<!--형태사항-->
<!ELEMENT 형태사항 (장정형태, 면장수, 권책수, 접지수, 삼도, 판식, 크기, 딸림자료)>

<!--총서사항-->
<!ELEMENT 총서사항 (총서명, 본총서의편차, 본총서의편제, 총서번호또는하위총서번호, 대등총서명, 총서주기)>

<!--주기사항-->
<!ELEMENT 주기사항 (주제어, 부출표목, 내용주기, 간사사항 )>

<!--해제-->
<!ELEMENT 해제 (#PCDATA|keyword)*>

<!--원문이미지-->
<!ELEMENT img ANY>

```

3. 2 기술요소의 적용 및 결과

앞의 체제에 『邵城聯芳集』의 기술요소를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명저자사항>

<본서>

<본서명>邵城聯芳集</본서명>

<표지서명>聯芳集</표지서명>

<판심제>聯芳集</판심제>

<저자 roll = “著”>蔡先吉(朝鮮)</저자>

<저자 roll = “共著”>蔡先見(朝鮮)</저자>

</본서>

</서명저자사항>

<제어필드>

<최종처리일시>2003년 2월 11일 01시</최종처리일시>

<형태기술필드 type = “고서”>선장</형태기술필드>

<목록작성기관>

<최초목록작성기관>211043</최초목록작성기관>

<입력기관>211043</입력기관>

</목록작성기관>

</제어필드>

<언어 lang = “다수언어”>

<본문>한문</본문>

<해제>한글</해제>

<원저작>한문</원저작>

</언어>

<기호>

<분류기호>

<사분법>

<부 desc = “集部”></부> <류>總集類</류>

</사분법>

<DDC 주제>⁵⁾

<기호>811.08</기호><명칭>문학</명칭>

</DDC 주제>

<주제분류>

5) 숙명여자도서관의 고서분류는 DDC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포함시킨 것이며 사분법과 그 이외에 분류 체제를 사용할 경우는 그 기호를 적용시키면 될 것이다. 새로 시작할 경우 본 연구에서 사분법과 더불어 제시하는 주제 분류를 추천한다.

<명칭>문집</문집>
</주제분류>
</분류기호>
<자관청구기호>811.08</자관청구기호>
</기호>

<판사항>
<판종 desc="목판" unit1="本"/>
</판사항>

<주기사항>
<부출표목>연방집</부출표목>
<간사사항>序：上之九年己巳(1809)仲春上浣沙梁崔興璧序</간사사항>
<간사사항>跋：上之十年龍集庚午(1810)榴夏上澣通訓大夫玄風縣監金用默謹跋</간사사항>
<내용주기>▼n卷1-2, ▼t琴灘逸稿 /▼d蔡先吉 著. -- ▼n卷3-4, ▼t兩傳軒文集 /▼d蔡先見 著
</내용주기>
</주기사항>

<형태사항>
<권책수>4卷1册 </권책수>
<판식>
<광곽의종류>
<종류>반곽</종류>
<광곽주기>半郭</광곽주기>
</광곽의종류>
<광곽의크기>20x16cm</광곽의크기>
<계선>주쌍행</계선>
<행지수>10行20字</행지수>
<어미>上內向二葉花紋魚尾</어미>
</판식>
<크기>31x20cm</크기>
</형태사항>

<간사사항>
<간사지>
<소제지명>大邱</소제지명>
<주기>대구</주기>
</간사지>
<간사년>
<연도>1863</연도>
<주기>哲宗 14</주기>

<주기>刊記:己巳(1809)四月日狎鷺亭新刊.</주기>

<주기>刊記:癸亥(1863)四月日盛才堂重刊.</주기>

</간사년>

<간사자>

<이름>盛才堂</이름>

<주기>성재당</주기>

</간사자>

</간사사항>

<해제>

소성연방집은 4권1책으로 구성된 문집으로 <keyword>1809년</keyword> (<keyword>純祖</keyword>9) <keyword>암로정(狎鷺亭)</keyword>에서 새로이 간행된 것을 <keyword>1863년</keyword>(<keyword>哲宗</keyword>14)에 대구 <keyword>성재당(盛才堂)</keyword>에서 목판으로 재간행한 것이다...[more]

</해제>

이상 XML에 적용된 각 구성요소들을 목록의 형식으로 구현시켜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서지사항의 맨 아래 해제의 경우, 설명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첫머리 문장 정도를 소개하고 [more]를 클릭하여 나머지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오른 쪽 상단의 원문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문이 뜰 수 있도록 하여 한 페이지에 모든 기술요소를 모아 놓았다. 물론 개별적인 설정이나 프리젠테이션 형식의 디자인은 개인이나 기관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적으로 구현된 XML은 그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큰 장서나 대 기관에서 사용되는 DBMS에서 제공되는 기타의 다양한 기능을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 구현은 고전 자료를 위한 바람직한 서지기술요소의 제시와

제안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더보기(more info..)에서 뜨는 전체 해제6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성연방집은 4권1책으로 구성된 문집으로 1809년(純祖9) 서울 암로정(狎鷺亭)에서 새로이 간행된 것을 1863년(哲宗 14)에 대구 성재당(盛才堂)에서 목판으로 재간행한 것이다.

지자는 조선조 채선길(蔡先吉)과 채선견(蔡先見)이 함께 저술한 것으로 시(詩), 서(書)를 비롯하여 축문(祝文), 제문(祭文) 등 각종 문학관계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종종 연방집, 연방록, 연방세고(世稿)라는 명칭으로 형제, 또는 대를 이은 합동 문집의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 또한 그 일종이다.

1809년 음력 2월에 통훈대부의 상순에 쓴 호(號)가 사량(沙梁)인 최흥벽(崔興璧)의 서문이

6) 최근 고서 DB에서도 해제(bibliographical notes, explanatory notes)를 초록(abstract)으로 표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초록이나 요약(summary)과는 달리 고서에서의 해제는 내용의 요약이나 초록과 더불어 고전자료 특유의 서지적인 주요 사항도 밝혀주는 곳이므로 반드시 해제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있으며 책 뒤에는 1810년 음력 5월 상순 통훈대부(通訓大夫) 현풍현감(玄風縣監) 김용묵(金用默)의 발문이 있다. 소성연방집 본래의 발문에 이어 여강(驪江) 이종상(李鍾祥)의 양전헌문집(兩傳軒文集) 중간(重刊) 발문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권1과 권2의 금탄일고(琴灘逸稿)는 채선길의 문집으로 권1에는 시, 서, 축문이 권2에는 일기,

제문 등의 금탄일고 부록(附錄)이 구성되어 있다. 금탄일고 앞에는 역시 전체 서문을 쓴 최홍벽의 금탄공일고(琴灘公逸稿) 서(序)가 있다.

권3과 권4의 양전헌문집(兩傳軒文集)은 채선길의 문집으로 권3에는 시, 소(疏), 기(記), 제문이 권4에는 묘지에 쓰이는 묘갈명(墓碣銘), 묘지명(墓誌銘), 일기 등의 양전헌문집 부록이 구성되어 있다.

서명	서명	邵城聯芳集	
	저자	蔡先吉(朝鮮) 著 / 蔡先見(朝鮮) 共著	
자료형태	자료형태	고서	
	특정자료유형	선장(線裝)	
언어	본문	한문	
	해제	한글 / 한문	
	원저작 언어	한문	
분류	사분법	부(部) : 류(類)	집부/集部 : 총집류/總集類
	주제분류	부(部) : 류(類)	문학/文學 : 문집류/文集類
	DDC	분류번호 : 명칭	811.08 : 한국문학
간사지	간사지	대구 / 大邱	
	간사년	1863년 / 哲宗 14 刊記: 己巳(1809)四月日狎鴉亭新刊 刊記: 癸亥(1863)四月日盛才堂重刊	
	간사자	盛才堂 / 성재당	
장정형태	판종	목판본	
	장정형태	선장(線裝)	
	권책수	4권1冊	
형태사항	판식	광곽의 크기	20 x 16 cm
		계선	주쌍행
		행자수	10行20字
크기	크기	어미	上內向二葉花紋魚尾
		삼도	없음
		크기	31 x 20 cm
주기	부출표명	연방집 聯芳集	
	간사사할	序: 上之九年己巳(1809)仲春上浣沙梁崔興壁序	
	간사사할	跋: 上之十年龍集庚午(1810)榴夏上滄通訓大夫玄風縣監金用默謹跋	
	내용주기	卷1-2, 琴灘逸稿 / 蔡先吉 著. 卷3-4, 兩傳軒文集 / 蔡先見 著.	
해제	소성연방집은 4권1책으로 구성된 문집으로 1809년(純祖 9) 압로정(狎鴉亭)에서 새로이 간행된 것을 1863년(哲宗 14)에 대구 성재당(盛才堂)에서 목판으로 재간행한 것이다. more info...		

〈그림 1〉 『邵城聯芳集』 목록

그런데 거의 모든 고전자료의 해제의 경우, 한 사람이 모든 작업을 맡을 수는 없고 일정한 형식이 없다 보니 가장 기초적인 어느 정도의 통일도 되지 않은 채 작성자의 의도대로 매우 난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물론 저술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대략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일목요연하게 이해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내용상으로는나 특성상으로는나 저술의 대표할만한 간략한 사항을 리드로 뽑아 두서너 줄 정도로 요약 소개한다.

둘째, 저자에 대한 소개와 앞에서 소개된 것과 서로 중복하지 않으면서 언급해야 할 내용 또는 특성(예를 들어 앞에 특성이 나왔으면 내용 쪽을)을 덧붙인다.

셋째, 서문과 발문에 대한 내용, 그 작성자 소개, 연대 등을 적는다.

넷째, 책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상술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특기할만한 내용들로 마무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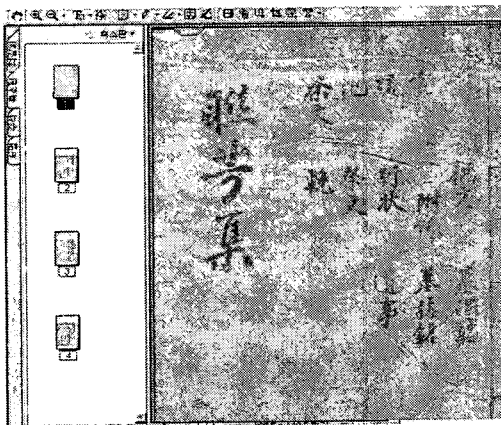
물론 서술에 있어서 목록규칙과 같은 원칙적

인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어떠한 하나의 절차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장소 내에서의 어느 정도의 통일성은 보여주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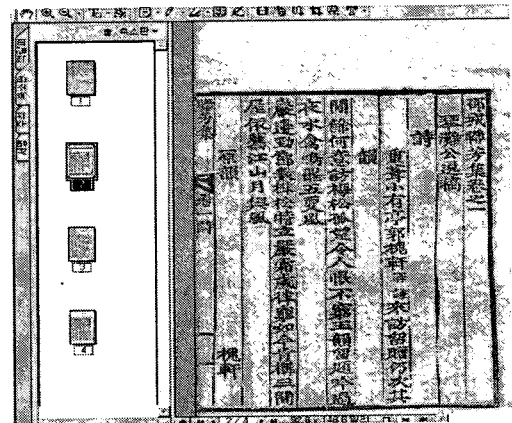
아울러 가급적이면 쉽고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되 해제 안에 해당 도서를 대표할만한 모든 키워드들이 들어 있으므로 앞의 예시에서 본대로 해당 색인에어 링크를 걸어 검색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하다.

다음은 링크된 표지 및 원문 이미지(PDF파일)의 예시이다.

현재 유통되는 일반서의 경우 표지나 표제지에 제목이 다른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표지 디자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책이 아닌 이상 표지는 표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고서에 있어서 표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위의 예처럼 상당히 많은 경우 권두제목과 표지제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서는 형태물리적인 장정의 가



<그림 2> 『邵城聯芳集』 표지



<그림 3> 『邵城聯芳集』 권두(卷頭)

치 또한 중요한 것이므로 이미지로서의 표지 소개는 선행되어야 한다.

3. 3 시스템 개발 사례

개인적으로 구현된 XML은 고전장서의 규모가 크거나 고전이외에도 종합적인 장서로 구성된 국립이나 대학 도서관 같은 경우에 적용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이나 상호연동작용을 구현할 수 있는 상용 DBMS가 요구된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으로는 ORACLE이나 MS Sql로서 고성능 XML 저장 및 검색으로 보다 새롭고 한 단계 높은 XML 형 콘텐츠를 수용하고 있다.

본 연구가 앞에서 제시한 각종 기술요소에 대한 모든 코드값을 주면서 최근 TG의 ORACLE 시스템(oracle 9i)에 의해 내용이 비교적 어느

정도 충실하게 수용되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의 고서(近思錄⁷⁾)의 사례를 소개한다.

기술요소의 코드값, 입력 편집사항, 출력상세서지정보, 해제, 원문 순서로서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부분류

한문명 한문명 영문명 코드값

經部 總經類 Chinese classics A01

經部 易類 Changes in general A02

經部 書類 Document in general A03

- 이하 생략 -

주제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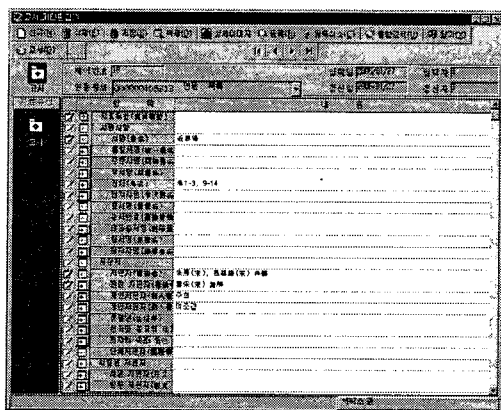
국문명 영문명 코드값

총류 Generalities nA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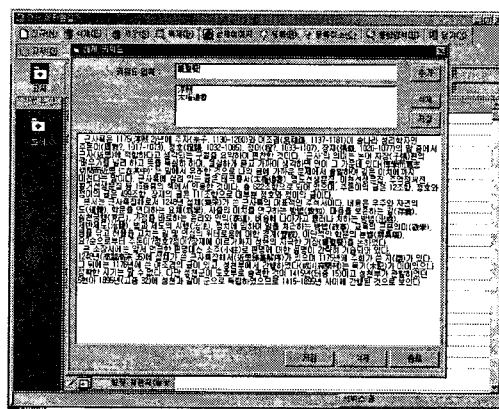
경학 - 총류 Classics - Generalities nB01

경학 - 철학 Classics - Philosophy nB02

- 이하 생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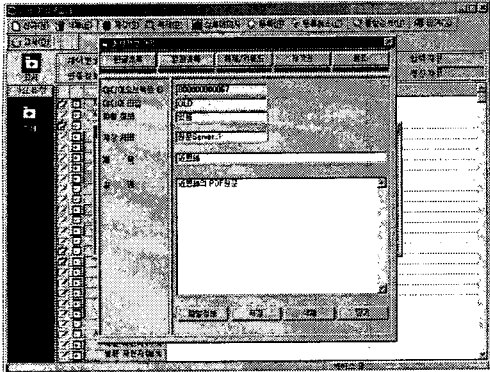


〈그림 4〉 서지사항 입력편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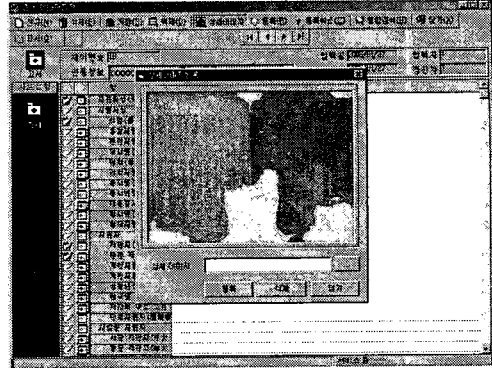


〈그림 5〉 해제/키워드 입력 화면

7) 숙명여대 소장인 본 『近思錄』은 우리나라 보물 1077호로 지정된 귀증본으로 사례소개로서의 의미가 있어 채택되었다. 디지털 체제로 도서관에서 원문까지 정리된 후 보다 나은 보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는 동 대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 6〉 매체정보관리 화면




〈그림 7〉 상세이미지 등록 화면

상세정보

해제 목차: 원문: Text

4:01:11:11
간략정보
검색결과



3

자료유형(資料類型) 고서

서명사항

권차(卷次) 卷1-3, 9-14

저권자

저권자(著編者) 朱軫(宋), 呂紹謙(宋) 共編

관련 저권자(著編者) 董承(宋) 集解

개인저권자(個人著編者) 주희
여조겸

간사사항(刊寫事項)

활자/판각(活字/板刻): 木板本(其他)

간사지명(刊寫地名): 晉陽(晉州)

간사자(刊寫者): [刊寫者未註]

간사년(刊寫年): 恭愍王 19(1370)년

서문시기(序文時期): 淳祐戊申(1248)

발문시기(跋文時期): 庚戌己丑(1370)

형태사항(形態事項)

권책장수(卷冊張數): 9권2冊

판식(版式):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8 x 12 cm, 有界, 8行18字 註雙行, 上下下向黑魚尾

크기: 26 x 14 cm

주기

일반주기: 본서는 자정문화재로 實物 1077號임

간사사항에 관한 주기: 序: 淳祐戊申(1248)具之日建安樂梁序, [1175]五月五日朱壽謙, 淳熙三年(1176)四月四日東莞呂紹謙

跋: 庚戌己丑(1370)...魯叔謙跋

進表文: 淳祐十二年(1252)...樂梁上表

刊記: 星山李氏刊于晉陽

소장본주기: 接接하였음

주제사항

일반주제어: 유학

사부분류(四部分類): 子部 儒家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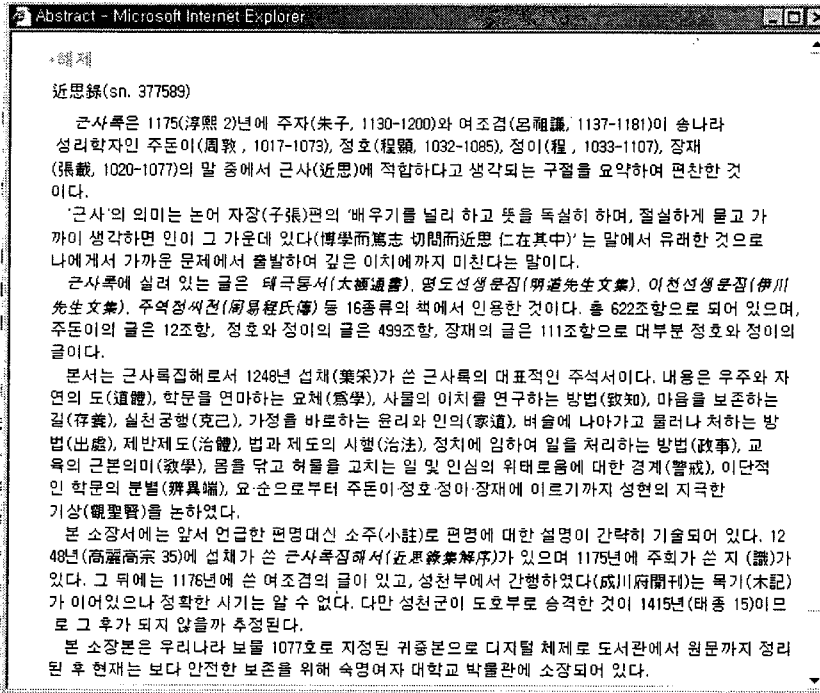
주제분류(主題分類): 유학

- 동일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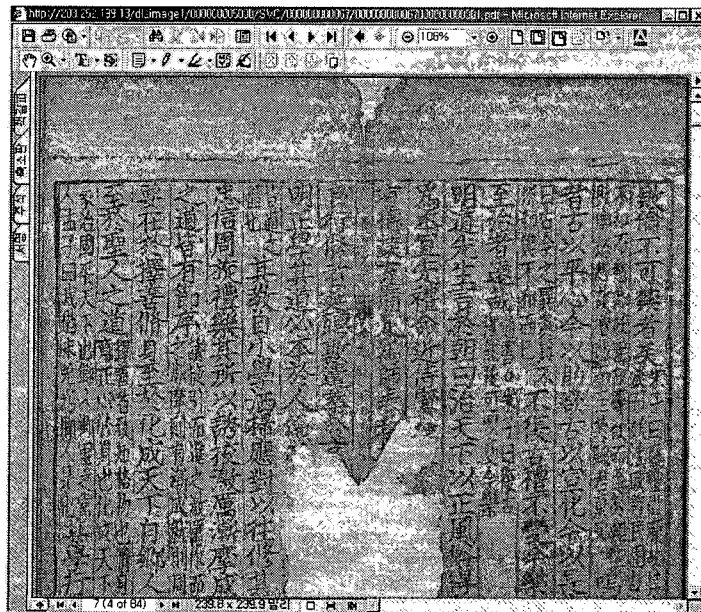
近思錄. 卷1-3, 9-14 / 木板本



〈그림 8〉 『近思錄』 목록



〈그림 9〉 『近思錄』 해제



〈그림 10〉 『近思錄』 원문

4. 결 론

이상 최근에 많은 관심과 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로 보았을 때 체계적인 정리나 전산화의 영역에서 미약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국학고전장서에 대해 보다 나은 대중화와 국제화를 시도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기준에 이루어진 MARC 체제는 지속적인 유지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면 되겠으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전산화 정리라면 보다 다양한 서지적 요소들을 충족시키며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관 프로그램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역시 입력이나 검색에서 보다 보편적이고 편안한 XML을 도입한 디지털 도서관 체제의 시스템 개발을 들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다양한 매체로 쏟아져 나와 정리 기준이나 보충 작업이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 일반자료와 달리 저작권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고전자료나 보존기록 자료들은 일단 한 번 종합적이면서 표준적으로 DL화되면 완전한 서지통정(bibliographic control)과 원문 열람이 시공을 초월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고전자료의 DL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고 직접적인 사례를 소개해 보였다. 본 연구가 보여주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장서에 대한 정리 결과라기보다는 한국학 고문헌 자료의 종합화, 일반화, 보편화, 국제화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 이외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고문헌은 쉬운 해제와 원문 DB를 제공함으로써 일반화시킬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한국학과 관련하여 양질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동양본과(Manuscripts Orientaux de la Bibliotheque Nationale)나 파리 국립 동양 언어 및 문화 학교(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INALCO)) 도서관 소장 한국학 고전자료라든가 그밖에 미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소장된 수많은 한국학 고전자료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 및 공유를 도모한다면, 적어도 한국학 고전자료에 관한 한 국내외적으로 그야말로 '디지털'과 '네트워크' 이전에는 거의 이론에만 가까웠던 국제적인 서지통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당연히 우리 학계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고전장서의 바람직한 정리 방안의 제시를 위해 현시점에서 해볼 만한 시도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대학도서관과 같은 종합도서관의 경우는 일반 장서와 같은 패키지 내에서 고서에 부여하는 요소를 추가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고서만이 갖고 있는 서지적 내용이나 형태적인 면들을 좀 더 완벽하게 구사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노출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의 부족한 점이 보충되기를 바라고 완벽한 국학고전자료의 단독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의 개발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방향에 대해서 여러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참 고 문 헌

- 구영옥. 2003. 『한국 고문서의 기술요소 선정과 고문서 XML DTD 설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국립중앙도서관. 2000.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 고서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00.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고서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정하. 2004. 『고서의 효율적인 정보조직체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규장각. 1982. 『奎章閣中國本圖書目錄』.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 서울대학교규장각. 1994. 『奎章閣韓國本圖書目錄』, 2 vols. 서울: 서울대학 교규장각.
- 서울대학교규장각. 1993.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7 vols. 서울: 서울대학 교규장각.
- 서울대학교규장각. 1994-2002.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續集』, 9 vols.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 李姬載. 2003. 『書誌學新論, 문헌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실제』. 改訂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 이희재. 1994. 프랑스 빠리 동양어학교 도서관 소장본의 주제별 특성과 의의. 『서지학회』, 10: 237-274.
- 쿠랑, 모리스. 1994. 『韓國書誌』 이희재 수정번역. 서울: 一潮閣.
- 한국도서관협회. 2003. 한국십진분류법(KDC). 제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